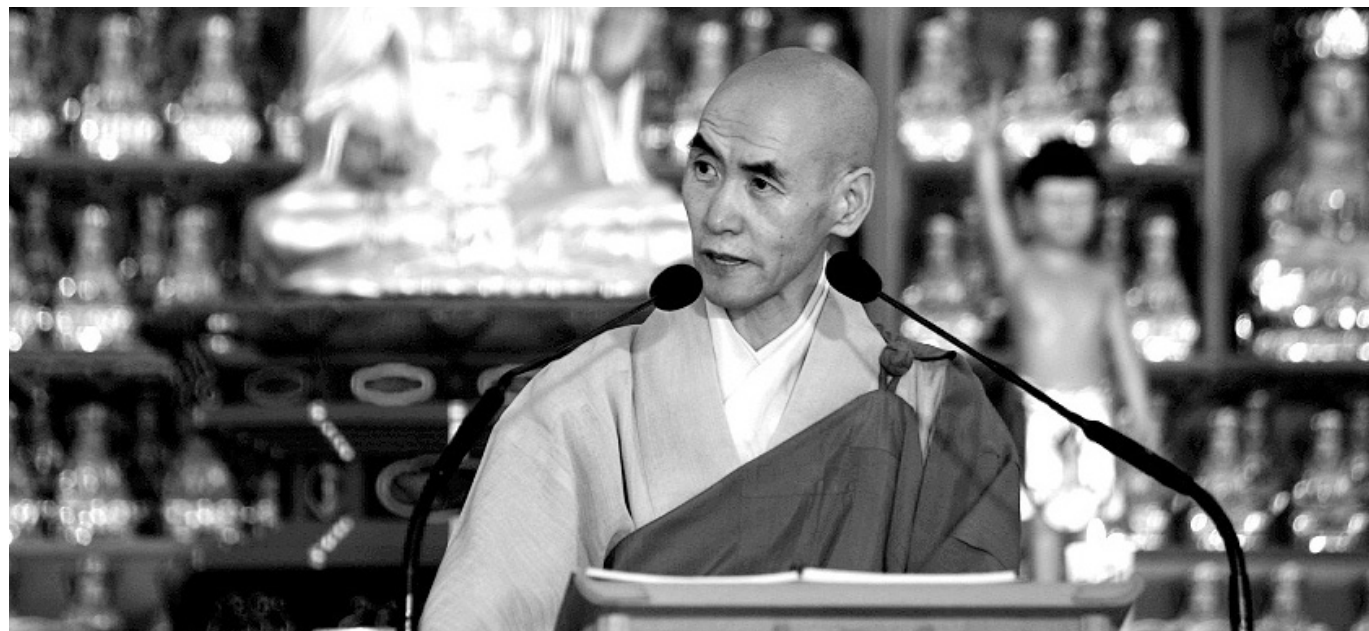


“심신 청정이 인생의 행복”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3월 3일 봉은사 법당에서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을 주제로 선교율법회에서 법문했다. 이날 도일 스님은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도 아라한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옷을 벗어야 하는 중차대한 바라이죄라며 깨끗하고 맑게 살 것을 강조했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봉은사 선교율법회 법문)

도를 깨달아도 대중에 그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면 100배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대중 100명에게 돌아갈 공양이 특정한 사람에게 올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에게 공양 올린다고 말하지 말고 승단에 바친다고 말한 후에 공양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쉬운 것입니다. 땅은 단단하고 태양은 빛나고 바람은 불어오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물을 물이라 말하는 것이지 물을 H2O(화학식)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의 법문은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의 법문은 어려운 이론을 끌어다 쓰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고 할 일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선종에서 진리를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때 중도, 불이법문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뭐냐, 중도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중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中道)의 도리도 그렇게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훗날 용수보살이 <중론(中論)>으로 팔부중도를 설명했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안가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를 제대로 아는 것은 나를 바로하고 몸을 제대로 다스릴 때 공부가 되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 사성제와 팔정도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경행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불교는 이론과 실재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것은 <화연경>의 이사법문(理事法門)입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등 사(事)적으로 살아가지만 어디든 걸림 없는 이치(理)가 그 안에 있습니다. <화연경>에서는 그 이치가 실제 적용되어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도는 자기 바로하는 것 거짓없는 청정 삶이 행복 그 행복 보시로 회향해야

최근에는 기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랄 것 없이 기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고 도덕적으로 밝아질수록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시하면 공덕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남에게 베푸는 생각보다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환원하는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스스로의 힘이나 아니라 사회와 우주의 연기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보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향이며 보다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것을 줄이면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을 살펴도 실천할 것들이 많습니다.

고리를 얘기 안해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중도법문이 생활 속에서 몸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행이고 공부고 없습니다.

6년 고행 후 부처님은 몸을 완전히 망친 후 이를 설하셨습니다. 당신이 체형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중도의 시작은 몸을 바로하고 제대로 다스릴 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팔정도의 길입니다.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면 나부터 깨끗하고 맑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금방 탈로나기도 합니다. 자신은 남을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혹여 남들이 모르더라도 자기 자신은 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은 어디에서든지 자신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도일 스님은...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7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도일 스님은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현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으로 원조 각성 스님에게 전각을 받고, 범일 보성 스님에게 전계를 받았다.

“종교평화의 첫걸음은 대화”



오강남 리지아나대 교수는 3월 6일 김영사 서울사무소에서 '종교너머, 아하'가 개최한 심층종교아카데미에서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종교, 도대체 뭐가? - 닫힌 종교와 열린 종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오강남 교수는 종교계가 열린 마음으로 사회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강남 리지아나대 교수 (심층종교아카데미 강연)

비교종교학은 두가지로 상정합니다. 인간은 다 종교적이다. 종교가 없다는 것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 이외에 종교가 있는 동물은 없다. 라틴어로 '호모 레이지우스스'입니다.

종교학은 막스 무러라는 독일 사람이 정립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막스 무러가 동양의 종교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막스 무러가 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의 종교만을 아는 이는 아무 종교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괴테가 한 말입니다. 괴테는 '하나의 언어만을 아는 사람은 아무 언어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내 종교가 좋다는 것을 알려면 내 종교보다 좋고 나쁜 다른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종교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어도 두 종교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른 종교, 타 종교라는 말 말고 이웃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대화입니다. 세계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종교간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종교간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wcc(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이 단체는 2차 대전을 겪으며 의식있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중심인 유럽에서 2차대전이 일어나는가'는 생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웃대인들의 '살림'이 '평화'라는 말이 있고 이슬람이라는 이름 자체도 '평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단체 사람들은 예수님 정신에서 우리가 화합하자고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같은 사람들도 정신이상자나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내편이나 니편이나 편가르기 하는 것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것이나 저 것이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는 이 것도 저 것도입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양 사상의 대부분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동양

여러종교 알아야 자기종교 알아 '편가르기' 이분법 분쟁의 원인 '열린 사고로 세계평화 이끌자'

은 비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 종교인데 유대인들이 포로로와서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풀어줬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무렵, 조로아스터교의 선신 악신, 천당, 지옥 등이 반영됩니다. 그 이후 유대교가 기독교, 기독교가 이슬람교 등으로 구조가 옮겨갑니다. 공산주의도 기독교의 세속적인 면을 축약해 구조에 반영했습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고용주와 노동자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원한다면 비이분법적인 사고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혹여 나쁜 일을 하더라도 연민의 마음으로 감싸야 합니다.

한국에는 도법 스님이 계십니다. 도법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간디에게 제일 영향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쌍용차 노동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있는데 노사가 내편 니편으로 갈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장 강력히 한 분이 빛났습니다. 스님입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이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프다면 나도 아픈 마음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를 '내적인 평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종교로 넘어가야 합니다.

서양은 이제 근본적인 배타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배타적인 자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이 세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근본주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생태 위기, 경제 불균형 등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열린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교세 확장의 모습을 떠나 사회 문제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 선교, 포교는 자기 교회·절의 신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 이끄는 것입니다.

오강남 교수는...비교종교학계의 석학인 오강남 캐나다 리지아나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종교학과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학을 공부했다. 비교종교학이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1970년대 캐나다로 건너가 동서 종교와 철학에 몰두한다. 저서로 <예수는 없다>를 비롯해 <세계 종교 둘러보기>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 등이 있다. 북미한인종교학회 회장, 미국종교학회(AAR)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 59기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이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입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지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개강 :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3층)
042) 255-0734~5